

## 편집부해문

편집부: 이와모토 미치야·시아오

한국어교정: 김호걸

본고는 華東師範大學의 정기간행물 『華東師範大學學報(哲社版)』 2016년 제4기에 게재된 王曉葵 「中國民俗學的發現: 一個概念史的探求」의 번역이다. 前号에 게재된 王씨의 「‘風俗’概念的近代嬗變」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前号에서도 소개한 바 있으나 王曉葵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南京大學에서 中文學을 修了하였고, 名古屋大學大學院 國際開發研究科 博士課程 수료 후에 동대학원에서 『西村茂樹에 있어서의 傳統과 近代』로 博士号(學術)를 취득하였다. 上海 華東師範大學 社會發展學院 民俗學研究所 교수와 소장을 거쳐, 2018년 8월부터 深圳에 있는 南方科技大學 社會科學高等研究院 교수로 옮긴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연구 테마는 災害연구를 基軸으로 한 民俗學的, 歷史社會學的인 記憶論이지만, 그 밖에 日中の 民俗學史에도 박식하다. 본고는 중국의 民俗學史에 관한 기초적 연구에 해당한다.

主要 著書로는 『民俗學과 現代生活』(上海文藝출판사, 2011년 12월)이 있고, 그밖에도 『現代日本 民俗學的의 理論과 方法』(共著, 學苑출판사, 2010년 10월), 『記錄과 記憶의 比較文化史』(共著, 名古屋大學出版會, 2005년 2월), 『近代 日本의 歷史意識』(共著, 吉川弘文館, 2018년 3월), 『記憶의 共有를 志向하여』(共著, 行路社, 2015년 9월), 『동아시아의 크리에이티브産業—文化的 폴리틱스』(共著, 2015년 7월, 森話社) 등이 있다.

본고를 번역하는 意義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에서 「民俗學」이 어떻게 하나의 學問 領域으로 탄생하여 갔는지, 중국의 學術分類體系에 「民俗學」이 어떻게 정착했는지 집중적으로 추적했다는 점이다. 20세기 初頭의 미국에서 華人 排斥에 대한 抗議運動 속에서 움튼, 출신지를 초월한 「鄉土意識」, 즉 「中國人」의식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 형성되어 갔고, 또 거기에 민속학은 어떻게 關係되는지를 묻고 있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想像의 共同體』를 인용하여 한 사람의 중국인이 無數한 동포와 같은 春節을 경축하고, 같은 糝(粽子)를 먹는 것을 상상하려면 胡朴安처럼 중국 각지의 多種多樣的 「民俗」을 동일한 時空 속에서 독자에게 내보이는 것과 같은 媒介가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의 言文一致運動이었던 白話文學運動이나 北京大學에서 1918년부터 시작한 歌謠收集運動을 응시하면서도 王씨가 착안한 것은 1922년에 설립된 北京大學 國學門연구소의 구성이다. 胡適 등의 활약에 의해 國學門의 세부 조직(一種의 講座)은 方言研究會, 風俗調查會, 考古學會, 明

清史料整理會, 歌謠研究會의 5개 부문이 있었는데, 그중의 3개가 민속학과 관련된 조직이었다는 것, 또 그 기관지였던 『國學門週刊』이나 『國學門月刊』에서도 민속학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는 당시부터 민속학의 「苦境」이 논의되었던 것에도 주목하여 민속학은 「副業」으로 빠지기 쉽고, 또 데이터의 收集과 정리만으로 그치기 쉽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王씨는 중국민속학이 원래의 문제의식을 잃어버리고, 현재에도 그 약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또 學史를 原初부터 묻는 것은 意義있는 일이라고 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前号에 게재된 王의 논문에서는 1923년 北京大學의 風俗調查會의 설립을 놓고 펼쳐진 「風俗」인가 「民俗」인가의 論爭, 「風俗」개념의 변천을 실마리로 하여 風俗과 folklore의 차이가 초래한 그 후의 展開를 추적하고 있다. 漢字文化圈에 있어서의 「風俗」개념과 folklore 혹은 「民俗」과의 차이점, 또는 「民俗學」과의 관계와 갈등을 다루고 있어 본 논문과 함께 읽는다면 동아시아의 「民俗學」을 근본부터 묻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